러시아외교론 13강

러시아와 한반도 통일

1.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비전

크렘린은 한반도 통일방법에 대하여 자신들의 비전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모스 크바의 공식적 입장은 외부로부터 간섭없이 평화적인 수단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함.

2. 러시아가 보는 한반도 통일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이 자신들한테 그렇게 많이 이로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치적으로 러시아의 국경에 미군이 주둔하는 강력한 친미국가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한반도의 이웃국가들의 대등한 힘이 주어진다면, 전문가들은 이들과 통일한국간의 장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한반도의 통일은 가까운 장래에 성취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한국인들은 특정한 날로 통일을 성취할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오히려 오랫동안 천천히 남북한 상호적응의 기간을 준비해야 할 것.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러시아지도부의 기본 접근은 가능한 오래 동안 한반도에 현상유지가 지속되는 것이 자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로 가는데 넘어야 할 장애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분석가들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한 단계로,

첫째, 남북관계의 적합한 기반(infrastructure) 조성에 전념하는 것이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일한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대규모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전통적 적에 대한 평양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북한사

회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통합을 위한 적합한 남북경제 교류도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가 좋아지면, 한국의 통일 부담은 더 줄어 들 것이다.

넷째, 문화교류는 경제 상화작용을 밀접하게 따르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이 같은 접촉들이 작동이 되면, 그땐 군사적 제안들이 실현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매 기회들이 북한에 제공된 후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의 변화에 의지한다는 것.

3. 주변4강과 한반도 문제 해결

한반도 주변4강들로부터 어떤 협력을 얻어야 한반도 문제해결에 유리할 것인지 다음 3가지 조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한반도 주변 4강은 한반도 문제해결에 서로 대등하게 참여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들 강국들 사이의 경쟁과 이 문제 해결에서 4강 가운데 어느 국가 또는 러시아를 배제하는 시도들은 단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주변 4강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해야한다. 한반도의 상호 승인 구상은 미국에 의해 고안되었고, 한국과 일본에 의해 지지되었다. 그러나 먼저 소련과 그리고 나서 중국과한국간 외교관계 수립한 후,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셋째, 4강은 북한의 내정문제에 불간섭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분석가들에 의하면, 주요문제는 냉전을 가져온 제2차세계대전 결과로서 한반도의 분단이었다. 한국인들은 재통 합을 해야 한다.

1) 중국의 입장

한반도 통일에 대해 베이징의 입장들에 대한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 분명한 불일치가 존재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통일된 한반도는 진정한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적 요소로 강해질 수 있음으로 동북아와 아-태지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중국의 숨은 계획들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반도 통일로 손해보다는 더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국경 인접한 곳에 가장 고통스러운 긴장지역의 하나가 해결 통일한국과 협력에서 훌륭한 경제전망 그리고 한반도문제에서 중국의 중간자역할로 인해 중국의 위신 증대 등이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중국이 원칙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환영하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에 반대하고, 장래 한반도 국가에서 미국 우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일본의 입장

한반도 남북한 통일이 장래 통일한국과 일본간 치열한 경쟁으로 이끄는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본에 도전으로 나타날 것이다. 때문에 일본은 내심 숨기고 있지만, 궁극적인 한반도 남북통일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아마도 남북통일이 몹시 민족주의적이고, 반미적이며, 그리고 반일적인 것이라고 보고, 결국 통일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기울 것이라는데 두려워하고 있다.

일본한테 특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한반도의 통일문제 해결은 아-태지역과 동북아에서 미국의 입지 약화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전 지역에서 미군 주둔 문제가 제기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일본은 거대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대국화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보호를 위해 미국과 군사-정치 동맹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3)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의 경우

한반도에 통일된 강한 국가는 러시아에 안보적, 정치적, 경제적 도전이 되지 못할 것이다.(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것과 같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바자노프는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본질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첫째, 러시아극동의 발전은 주요 국가적 목표이며 한반도에서 평화 없이 실현될 수 없다.

둘째, 극동개발에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한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이웃 지역들에 안정과 국제적 협력이 러시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넷째, 안보혜택은 여러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안보체제의 구축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4. 한반도의 정상화와 통일

러시아가 한반도의 정상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전적으로 환영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지적하는 것은 정상화는 러시아의 이익에 이로움을 주는 한반도의 군사 정치적 상황의 안정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된 국가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 경제와 문화영역에서 러시아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전략적으로도 통일한국은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파트너가 되어 호혜적인 협력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및 일본에 대한 러시아의 협상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러시아입장에서 통일한국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통일한국은 비핵국이어야 하고, 현재 북한지역에 미군이 주둔하는 등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현 위치 고수 등을 사전에 약속하여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강국들이 통일을지지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Russia and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1. Basic Approach of Russian policy maker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vital. Six-Party talks are the most efficient way to accomplish that goal. Russia has no intention of recognizing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 'diplomatic solution' should be sought, although there are few optimists who believe that would happen any time soon.

Under on circumstances should military action to rein in the nuclear program or attempts to change the regime(effectively eliminating the North Korean state from the political map) not be permissible.

Sanctions do not help either. Only a compromise can lead to a breakthrough.

Under that logic, maintaining amicable relations between Moscow and Pyongyang is imperative both for Russia's ability

- to prevent dangerous developments and
- to influence Pyongyang to be more receptive to compromise.

Such an approach suits well the core Russian strategy based on its national interests and also is in tune with the policies of its "sterategic partner" - China.

It is also useful to contain potentially hostile Western ambitions in a vital area where Russian positions have never been strong enough.

Deep in the heart of many Russian policy makers in the belief that the idea of a nuclear North Korea is less appalling than that of a destroyed North Korea.

Regardless of Russia's actions, Pyongyang will not change its behavior unless US policies change. Since this is actually beyond Russia's control, Moscow feels no need to rush.

The status quo can only be considered an indirect challenge to its global priorities, suits Russian interests.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thout a solid system of collective security in the region could actually increase the military risks in Russia's neighborhood.

The conclusion that the country has really "denuclearized" cannot be reached under the current political regime.

What could really affect Russia's interests is a further expansion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and improvement of their nuclear weapons and delivery systems(missile programs). That could have consequences eventually endangering Russia's national security.

To achieve these goals, the multiparty negotiation process is essential, even though it would hardly bring immediate results.

2. Pyongyang's aims

Pyongyang's aims are to remove military-political threats to the regime, achieve security arrangements, prevent foreign interference, and obtain economic assistance.

The mechanism to discuss these concerns exists. It is again the Six-party talks. But the talks should not concentrate exclusively on the nuclear issue. They should deal with comprehensive security problems.